

# 설렁탕부터 패스트푸드까지...한국인 입맛 100년 변천사



## 백년 식사

주영하 지음

가수 신해철(1968-2013)이 1992년 발표한 노래 '도시안'에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라는 가사가 나온다. 1990년대 초반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생활 모습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20년. 다양한 맥방, 쿠팡이 방송 프로그램을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 방송 가운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게 바로 '집밥' 요리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집밥에는 "1960년대 이후 생산이 늘어난 각종 공장제 조미료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본다.



'음식의 역사를 알면 그 사회와 문화가 보인다'는 말은 고전적 명제가 된 지 오래다. 특정 사회와 문화를 보려면 음식을 보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이다.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그만큼 식문화가 우리의 일상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음식전쟁 문화전쟁', '음식 인문학', '식탁 위의 한



▲ 2019년 9월 20일 조선호텔 조리팀에서 재현한, 고종과 엘리자베스 루스벨트의 온찬 메뉴 중 하나인 골동면.

▶ 1884년 미국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가 전주에서 맛본 "포슬포슬하고 달콤한 작은 떡 덩어리"라고 묘사한 경단.



1980년대 이후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구이.

곡사'의 저자 주영하는 그동안 음식의 인문학적 탐구를 지속해왔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역사학과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터라 관심사가 음식문화에 수렴된다. 2007-2008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아시아학과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오늘날 한국인의 입맛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최근 펴낸 주 교수의 '백년 식사'도 그러한 관점의 결실이다. 제목은 '백년 식사'이지만 저자의 관심은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강화도조약 체결 즈음까지 이른다. 다시 말해 '개항의 식탁'부터 오늘날 한국인의 식탁을 장악한 세계 식품체제를 다룬 '세계화의 식탁'에까지 걸쳐 있다.

개항기 조선에 들어온 서양인들은 식사를 위해 직접 식품을 싸온 경우도 있었다. 물론 조선 음식을

먹는 데 주저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1888-1889년 조선을 여행한 프랑스 여행가이자 지리학자 샤를 루이 바라는 프랑스를 떠나면서 와인을 비롯해 보르도 향구 근처의 공장에서 만든 푸아그라 통조림까지 챙겨 왔다."

이에 비해 1884년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는 파주, 개성, 강화도는 물론 전주, 나주, 남원 등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가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식탁은 전주에서 대접을 받았을 때였다. 붉은 색 상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각 식탁 옆의 작은 식탁에는 화로가 달린 놋쇠 솥에 채소와 고기가 김을 내며 끓고 있었다. 내가 전에 적었던 요리와 비슷했지만 하얀색, 갈색, 검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의 포슬포슬하고 달콤한 작

은 떡을 쌓아올린 떡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1900년대부터 서울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문을 열었다. 조선요릿집뿐 아니라 술집이나 전골집, 설렁탕집 등이 당시에 생겨났다. 서울의 중급급 음식점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설렁탕이었다. 그러나 일부 양반 출신들과 모던보이와 모던 걸은 설렁탕을 먹고 싶어도 음식점에 가는 걸 주저했다. 당시만 해도 엄연히 계층 구분이 있었고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은 자신들도 식민지 국민이면서 하층민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 출입을 삼갔던 탓이다.

또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서는 조선의 입맛 또한 변해갔다. 한마디로 서서히 서양화돼 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조선의 식탁을 장악한 화학조미료 아지노모토, 지금도 한국 음식 기본 재료

인 장유라 불리는 일본식 공장제 간장이 그 예다. 한국전쟁과 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음식문화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대 번데기 조림 같은 대응식 외에도 구호품으로 보낸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 호떡, 소면으로 만든 국수, 수제비, 빈대떡, 풀빵 같은 분식이 대중화됐다.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활어회, 삼겹살 구이 같은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1990년대에 등장했다. 책에는 다양한 문헌, 당시 식품 광고 등도 수록돼 있다. 지난 100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들의 식생활뿐 아니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불편한 진실들도 만날 수 있다. <휴머니스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연 제작자들

요아브 블룸 지음, 강동혁 옮김

가이는 좀체 웃지 않는 우연 제작자다. 그의 특징은 '인연 맺어주기' 우연 제작. 그는 커센드라라는 과거의 운명을 좇는 로맨티스트다. 커센드라는 가이의 유일한 사랑이며 그는 그의 그림자만 쫓는다 다른 사람을 만날 겨를이 없다. 또 다른 인물 에밀리는 우연 제작 성공률이 80 퍼센트에 달한다. 비록 작고 여러지만 그는 평균 우연 제작 성공률인 65퍼센트를 상회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가이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가이는 커센드라에 대한 기억을 좇고 있을 뿐 에밀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베스트셀러 작가 요아브 블룸의 2018 레트로-게펜 SF&판타지 부문 수상작 '우연 제작자들'은 삶의 백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사랑을 그린다. 소설은 장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SF, 판타지, 로맨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3개국에서 번역됐다. 미국의 저명한 각본가 리처드 프리드버그의 손을 거쳐 영화화가 결정되기도 했다. 작가는 한 마리 나비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모티브로 작품을 썼다. 소설은 그 나비가 날개를 움직이도록 설득한 '우연 제작자'라는 어떤 존재를 가정한다. 이들 우연 제작자는 인간처럼 일상적이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들의 우연 계획은 다채롭다. 연인이 되지 않는 남녀를 연결해주고, 시인이 될 운명을 모르는 회계사에게 시 쓰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결국 소설은 사소한 우연들이 더 큰 사건을 촉발시키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정말로 우리 곁에는 '우연 제작자'가 있는 것일까. <푸른숲·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모르파티

이주향 지음

'내면을 응시하는 영혼은 삶의 고단함마저 에너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 그는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줄을 어떻게 엮고 있는지 스스로 응시할 줄 아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믿는다.

철학자 이주향은 그동안 난해한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와 저술활동을 해왔다. 한국이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수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에 이 교수가 "운명애(運命愛)는 존재의 이유"라는 주제를 담은 '아모르파티'를 펴냈다. 부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전체적인 책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아모르파티의 사전적 의미는 운명애다. "누구에게나 살아온 날들의 힘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둠의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은 도망치고 싶은 운명의 시간이지만 거기서 우연히 던져지는 그 시간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에게 그 우연의 시간은 필연의 시간일 것입니다."

책에는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은 운명적인 남자 또는 여자다. '초월의 빛'의 베니,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히리와 멜라니, '전쟁과 평화'의 안드레이와 나타샤 등이 그들이다.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인연 속에서 얽히고설린 삶의 모습을 웅숭 깊은 문장으로 풀어낸다. 삶을 바라보는 직관과 안목은 독자들에게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글과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그림들은 읽는 맛 외에도 보는 맛까지 더해준다. <맥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생명을 보는 마음

김성호 지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생명은 있다. 보이지 않는 생명과 다른 모든 생명이 서로 이어져 있다. 연결 고리의 어딘가에 우리 인간도 서성이고 있다."

생명과학자이자 생태작가인 김성호 작가가 자연과 함께한 60여 년의 삶을 기록한 '생명을 보는 마음: 생명과학자의 삶에 깃든 생명 이야기'를 펴냈다.

김 작가는 '새 아빠'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새를 관찰하고 기록한 '큰오색딱따구리의 육아일기', '동고비와 함께한 80일' 등을 펴냈고, 관찰과 생명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들도 여러 편 냈다. 이 책도 저자가 온 생애를 바쳐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바라본 생명에 대한 마음의 기록이다. 자연과 함께하고 관찰한 자신의 온 삶을 쏟아부었다는 이 책에 대해 그는 '생명 이야기'라고 표현했지만 이 책은 동물, 식물, 미생물을 아우르는 생명 전체에 대한 연구서로 더 가깝다.

동물에 관해 10장, 식물에 대해 4장, 작은 것들에 대해 3장 총 3개 큰 파트로 나누어 있다. 가장 커다란 기준으로 생명을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서 이들에 대해 기술한다. 어린 시절에 만나 때론 친구도 되었던 다양한 동물들을 시작으로, 새·야생조류·반려동물·멸종위기종·야생동물·동물축제 속 동물·동물원 동물·실용동물·바이러스를 망라한다. 식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 속 식물들을 시작으로 식물에 대한 학문적 정리를 하면서 왜 식물이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미생물에 대해서는 세균·진균·원생동물로 나눠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 작은 것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꼼꼼하게 알려준다. <풀빛·2만2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